

술술 이야기 읽기 4 동화



술술 이야기 읽기 4

동화

발행일 2023. 10.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발행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역은이 김수지 · 김인숙

편집인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최종성, 최민음

주소 (본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7(도화동) 14층

전화번호 02.719.6017

홈페이지 slei.seoul.kr

본 저작물은 저작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발행했습니다.

차례

- 01 황소와 거미 노양근 1
- 02 까치의 옷 방정환 5
- 03 꼬부랑 오이 노양근 11
- 04 지붕 위에 올라가 이구조 17
- 05 비 오는 날 노양근 23
- 06 벚꽃 이야기 방정환 29
- 07 배똥똥이 노양근 35
- 08 참새와 구렁이 노양근 43
- 09 그림책 이구조 53
- 10 아기 물장수 노양근 61
- 11 알사탕과 설탕 이구조 71
- 12 네발자전거 노양근 81

이 황소와 거미

작은 거미 한 마리가 밤나무 가지에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는 커다란 황소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거미를 한 번 쳐다보고는 씨익 웃었습니다.

“애, 거미야.”

“황소님, 왜 부르시나요?”

“거미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줄을 쳐서 대체 무얼 할 셈이냐?”

황소가 우습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거미줄을 쳐야 밥이 생긴답니다.”

“그래. 그 거미줄로 네 먹이를 잡겠단 말이지?”

“당연하지요.”

황소는 거미의 대답을 듣고는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거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어리석구나. 어디 걸릴 데가 없어서 네 작은 거미줄에 걸린단 말이냐?”

거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바쁘게 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황소의 눈에 붙었습니다. 황소는 파리 때문에 간지러워서 머리를 휘휘 흔들었습니다. 파리는 포르르 날았다가 또다시 황소의 눈에 붙었습니다.

황소는 그렇게 파리와 몇 차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끝내는 골이 나서 머리통을 밤나무 밑동에다 썩썩거리며 비뚤었습니다. 그런 황소의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거미는 허리를 움켜잡고 한참이나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황소는 자신의 힘이 꽤 세다며 우쭐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파리 한 마리를 당해 내지 못하다니, 그런 황소가 거미의 눈에는 얼마나 우스웠는지요. 그렇게 한참을 웃던 거미는 가뜩이나 가는 허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황소가 하도 씹씹거리며 덤벼드니 파리는 다른 데로 가려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러다 그만 파리가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미는 ‘웁다구나’ 하고 얼른 파리를 줄로 칭칭 감았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황소님, 황소님. 요까짓 파리 한 놈도 못 이기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 어찌십니까?”

황소는 거미줄에 걸려 꼼짝도 못 하는 파리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거미를 깔보고 놀린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애, 거미야. 너의 재주가 참 용하구나. 너는 어떻게
기는 놈이 나는 놈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니?”

황소가 물었습니다.

“굼벥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다 자기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황소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요 파리가
제게는 꼼작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거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황소는 누구에게도 힘자랑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조금이라도 잘난
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랴!”
하고 자신을 끌어도 그저 묵묵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황소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되었습니다.

까치의 옷

옛날 어느 산속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할머니가 젓먹이 아기를 얻어다 기르고 있었습니다.

집 뒤꼍 담에는 올빼미 한 마리와 까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와 까치는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친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에 할머니가 마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뒤꼍에 가서 올빼미와 까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에 잠깐 다녀올 것이니, 너희가 그동안
우리 아기를 잘 지켜봐 다오. 그 대신 잘만 봐 주면
내가 상으로 옷을 한 벌씩 만들어 줄게.”

할머니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까치는 “깹깹”
울고, 올빼미는 “꾸룩꾸룩”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안심이 되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갔습니다. 캄캄한 산속은 물소리가
출렁출렁 나고, 바람이 쉼아 불어 몹시도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올빼미와 까치는 자지 않고
아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중 나무 밑에서 쇠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눈이 밝은 올빼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보기에다 무서운 시커먼 구렁이
한 마리가 아기가 자는 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올빼미는 큰일 났다고 까치를 보고 작게
울었습니다.

까치도 구렁이를 보았습니다. 놀란 까치는 얼른
깹깹 울며 자신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까치의

소리를 듣고는 까치 떼가 금세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까치 떼는 힘을 합쳐 구렁이를 힘껏 쫓았습니다.
방문턱까지 왔던 구렁이가 다행히 문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렁이가 죽은 것을 보고야 까치 떼는
헤어졌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갔던 할머니가 급한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빼미와 까치는 방문 앞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등불을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방문 앞에는 구렁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복덩이 잘도 잔다. 까치야, 올빼미야,
기특하다. 너희가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내일 좋은 옷을 지어 줄 것이니 오늘은 편히들
자거라.”

날이 밝아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까치와 올빼미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빼미에게는 얼룩덜룩한 무늬의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까치에게는 하얀 비단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올빼미는 의젓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까치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기분이 좋아서 자꾸
징정징정 뛰어다녔습니다.

“애야, 좀 가만히 있거라. 어디 맞나 안 맞나 보자.”

할머니가 까치를 타일러도 까치는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글쎄, 이리 좀 오라니깐. 옷이 맞나 안 맞나 좀 보자.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먹물을 끼얹을 테다!”

할머니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까치는 뛰어다니느라 못 들었습니다. 참다못한 할머니는 결국 대야에 있던 먹물을 까치에게 끼얹었습니다. 까치의 하얀 비단옷은 금세 까맣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 쪽만은 먹물을 안 맞아서 하였습니다. 그래도 까치는 그저 그 옷을 입은 것이 좋아서 정정정정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까치는 등은 까맣고 배는 하얀 채로 기분 좋게 뛰어다닌답니다.

꼬부랑 오이

한 덩굴에 오이 다섯 형제가 나란히 달려 있었다.

첫째 오이, 둘째 오이, 셋째 오이, 넷째 오이는 모두
늘씬하고 매끈하게 잘생겼다. 하지만 막내인 다섯째
오이만은 꼬부라지고 울퉁불퉁하며 생긴 것이 영
성치 않았다.

막내 오이는 저 혼자 못난 것이 몹시 서글펐다.
늘씬하고 매끈하게 잘생긴 형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어느 날, 막내 꼬부랑 오이가 엄마 덩굴에게 심술을
부리고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꼬부랑이로 생겼어요? 응?”

막내 오이의 말을 들은 엄마 덩굴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았다. 그리고 앞사귀 손으로
꼬부랑 오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막내야, 꼬부랑이로 생겼으면 어떠니? 마음씨가
착한 것이 제일이란단다.”

“그래도 난 싫어. 형들처럼 깨끗하게 잘생겨야
좋지, 뭐!”

“막내야, 잘생긴 것만 좋은 게 아니란다. 못생긴
것도 귀여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야.”

“정말?”

“그럼. 못생긴 것도 필요한 곳이 있단다.”

엄마의 말에 꼬부랑 오이는 귀가 솔깃하여 그만
울음을 토했다.

이튿날, 오이 장수가 텅굴마다 열린 오이를 죄다
빤다. 그리고 손수레에 오이를 잔뜩 싣고 시장에 팔러
갔다. 그 바람에 오이 다섯 형제도 어머니 텅굴의
품을 떠나 시장으로 오게 되었다.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손수레에 실려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돌아다녔다.

“오이 사려! 오이 사려!”

오이 장수는 있는 힘껏 큰 소리를 외치며 오이를 팔았다.

오이 장수가 소리를 외칠 때마다 오이들은 깜짝 놀라 바구니 안에서 데굴데굴 굴러다녔다. 오이들은 난생처음 보는 서울의 거리와 도시 사람들이 이상해서 자기네들끼리 쿡쿡 찌르며 시시덕거렸다.

오이 장수가 한 골목 두 골목 돌 때마다 바구니 안의 오이들은 하나둘씩 줄어 갔다.

“오이 사려! 오이 사려!”

오이 장수가 한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부인이 오이 장수를 불렀다.

“오이 장수!”

“예.”

오이 장수는 수레를 끌고 얼른 부인에게 달려갔다.

“오이가 10전에 몇 개인가요?”

“다섯 개입니다.”

“그럼 30전어치만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이 장수는 신이 나서 부인의 바구니에 오이를 담았다. 이때 꼬부랑네 오이 다섯 형제도 부인의 바구니 속으로 옮겨졌다.

부인이 오이 바구니를 들고 집에 도착하니, 인형을 가지고 놀던 딸아이가 바구니 속을 보러 왔다.

딸아이의 이름은 정순이었다. 정순이는 바구니 속의 오이를 보더니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오이 하나만 주세요.”

“그래, 하나만 꺼내 가져가렴.”

정순이는 바구니에 손을 넣고 어떤 오이를 가져갈지 고민하며 오이를 뒤적뒤적하였다. 마침내 정순이가 오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 바로 막내 꼬부랑 오이였다.

“꼬부랑 것이 귀엽게도 생겼네!”

정순이는 꼬부랑 오이를 부드러운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좋아했다. 그러더니 장난감 상자에 담겨 있던 꼬까옷 한 벌을 꺼내 꼬부랑 오이에게 입혔다.

꼬부랑 오이는 꼬까옷을 입은 예쁜 오이 인형이 되었다. 정순이는 꼬부랑 오이 인형에게 입을 쪽 맞추고는 책상 위의 꽃병 옆에 세워 놓았다.

“꼬망아, 잠깐 여기 서 있어. 내가 꼬까 모자 만들어 줄게.”

정순이는 꼬부랑 오이에게 ‘꼬망이’라는 귀여운 이름도 지어 주었다.

꼬부랑 오이는 그제야 엄마 덩굴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엄마의 따뜻했던 위로를 떠올리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지붕 위에 올라가

첫째는 처음으로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언니가 지붕 위에 올라간 것을 둘째가 보았습니다. 둘째가 곧이어 언니가 타고 올라간 사다리에 가서 한 칸, 두 칸,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은 둘째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세 칸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언니! 나 좀 붙들어 줘.”

지붕 위로 올라가고 싶은 둘째가 말했습니다.

“한 칸만 더 올라오면 돼. 어서 올라와.”

“아휴, 더는 못 가겠어.”

둘째는 닭 쫓던 개 모양으로 지붕만

쳐다보았습니다.

첫째는 지붕에 올라앉아 옆집 뜰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간 꽃, 분홍 꽃, 하얀 꽃 등의 이름 모를 꽃들이 수두룩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기도 하지.’

첫째는 알록달록한 꽃들을 보았고, 다양한 잎새도 보았습니다. 장독대 뒤에서 고양이가 낮잠을 자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저 좋아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둘째는 아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겁이 나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가 휘방을 놓아서 못 올라간 것처럼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세 칸씩이나 올라갔던 사다리에서 쑥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는 눈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고 긴 허리띠를 던져 놓은 듯한 넷물이 보였습니다. 햇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넷물은 마치 하늘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넷물이 참 곱기도 하다!’

둘째는 풍경 보는 것에 폭 빠져 자신은 쳐다봐 주지도 않는 언니가 야속했습니다.

“사다리 치워 버릴 테야!”

둘째가 사다리를 치워 버린다고 해도 첫째는 보기는커녕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더 약이 올라서 말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게 뭐 대수인가! 난 수수팔떡 먹으러 갈 테야.”

둘째는 수수팔떡을 가지러 부엌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돌려 맞은편을 보았습니다. 폴썩폴썩한 먼지를 피우며 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당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저것을 볼수록 재밌었습니다. 첫째의 생각에 날개가 돋쳤습니다.

‘저 냇물은 차차 넓어져서 끝없이 넓은 바다가 되겠지?’

첫째는 그림에서 본 바다가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배와 작은 배,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배들이 떠다니는 바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부엌에서 수수팔떡을 들고 나왔습니다.

“언니! 수수팔떡 안 줄 테야!”

“....”

“언니가 지붕에 올라가더니 귀까지 먹었나 봐.
아아, 팔떡 참말로 맛있다!”

“....”

“참! 광에 갱엿이 있었지! 갱엿도 갖다 먹어야지.
언니, 갱엿 먹을 거야?”

“....”

둘째는 아무런 말이 없는 언니를 뒤로하고 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바다를 한참 보던 첫째는 길을 자꾸 걷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풀썩풀썩 먼지를 피우며 가는
사람들과 같이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는
한참이나 좁은 길을 걷고, 높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넌습니다. 그리고 꿈나라로 갔습니다.

첫째가 꿈나라에 도착하자 꿈나라의 아이들이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아이도 있었고, 파란 옷을 입은 아이도 있었고, 분홍 옷을 입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색색이 꽃이 핀 꽃밭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첫째도 아이들과 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광문을 빼적 닫고 갯엿을 들고 나온 둘째는 지붕

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갱엿 안 줄 테야!”

그래도 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에이, 지붕에서 살게 사다리 치워야지.”

둘째는 지붕과 땅 사이에 걸쳐 놓였던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05 비 오는 날

거리에는 땃살 같은 비가 죽죽 퍼붓고 있었다.
억진이가 배달부로 있는 냉면집 전화가 요란스럽게
울어댔다.

“따르릉.... 따르릉....”

냉면집 주인은 전화기를 들고 점잖게 전화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열 그릇이요? 네, 곧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주인이 억진이에게 말했다.

“냉면 열 그릇 얼른 해서 금강상회로 가져가거라.”

잠시 후에 억진이는 국수 목판에다가 냉면 열

그릇과 간장병, 고춧가루 그릇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전거를 얼른 몰아 금강상회로 향하였다. 몹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억진이는 속력을 내서
자전거를 몰았다.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질퍽거리는
길 위로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오고 있었다. 자동차는
억진이의 자전거를 보고선 연거푸 “뽕뽕” 하며 경적을
울렸다.

억진이는 자전거를 세워 자동차를 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억진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휘청거리며 미끄러졌다. 그 바람에 배달하던 국수
목판이 잡을 새도 없이 길바닥에 폭삭 떨어졌다.

억진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속도 모르고 비는
등덜미를 얼마나 세차게 내리치던지. 억진이는 그만
흙바닥에 주저앉아 한바탕 울고 싶었다.

한 달에 월급이라곤 몇 푼 되지 않는데, 떨어진 국수
열 그릇과 깨진 그릇 값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아니 그보다도 주인에게 또 “국수를 전부 버렸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또 냉면을 주문한 상회에는
무어라 말을 하나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동안에 심술 사나운 자동차는 벌써 모른 척하며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역진이는 한참이나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떠나간 자동차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였다.

“이래 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서 우리 누님을 빼내
오나.”

역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그릇들을 주워
담았다.

역진이는 가여운 소년이었다. 작년만 해도
어머니와 누나인 역년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역년이는 제사 공장에 다니며 조금씩 돈을 벌었다.
역진이도 소일거리를 해서 몇 원씩이라도 보태며
근근이 지냈다. 그러다 어머니가 병환이 나시면서 약
값이 적지 않게 들어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어머니의 병환에는 차도가 없었다. 효성이 지극한
역진이 남매가 여러 생각을 한 끝에 누님인 역년이가



술집에 들어가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 드렸다. 역진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를 악물고 돈을 벌어 술집에서 누님을
빼내 오기로 하였다. 그래서 누님은 술집에 가 있는
몸이 되고, 역진이는 냉면집에서 배달부로 일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몇 달 만에 돌아가시고,
역진이 남매는 가엾게 동서로 떨어지게 되었다.

한참 만에 역진이가 냉면 그릇을 목판에 담아

들고는 힘없이 자전거를 일으켜 세웠다. 주인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지나갔던 자동차가 또다시 달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억진이의 앞에 우뚝 멈추었다. 억진이는 그 자동차가 미워 잔뜩 흘려보다 옆으로 비켰다. 그런데 누군지 자동차에서 “억진아!”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누님이었다. 억년이는 자동차에서 부리나케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너였구나! 어쩐지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럴싸하더라.”

억년이는 억진이의 손을 단단히 쥐었다.

아까 그 자동차는 억년이가 있는 술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억년이는 차에 있던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넘어진 아이가 억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단번에 자동차를 잡아타고 달려온 것이었다.

억년이는 비단옷이 비에 젖는 것도 상관치 않으며, 억진이의 손을 쥐고선 한참이나 억진이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억년이의 고운 뺨에는 구슬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억년이는 억진이의 손에
무언가를 슬그머니 쥐여 줬다.

“억진아! 난 바빠서 이만 가야겠다.”

억년이는 급히 자동차를 타고 가 버렸다.

억진이의 손에 쥐어진 것은 누님이 늘 귀하게
여기던 금반지였다. 억진이는 그 반지를 보고 누님의
뜻을 알아차렸다. 억진이는 전당포에 그 반지를
맡기고 돈 5원을 얻어서 냉면 값과 그릇 값을 물어
주었다.

억진이는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오냐. 더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누님의
반지도 찾고, 누님도 찾아 잘되어야 한다!”

벚꽃 이야기

백 년도 더 된 오래전이었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시골에 살던 소년들은 늘 이야기로만 듣던 서울이 궁금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서울을 안고 있다는 ‘삼각산(三角山)’이었습니다. 모양이 세모라 삼각산인지, 봉우리가 세 개여서 삼각산인지 궁금했습니다. 삼각산에는 얼마나 좋은 숲과 골짜기가 있을 것인지, 골짜기마다 물은 또 얼마나 맑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열세 살, 열네 살 또래의 소년 21명이 무리를 지어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도착해서는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흘 밤낮으로 서울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화문 밖에 있는 삼각산을
찾아갔습니다. 소년들은 얼마나 반갑고 기뻐했을까요.

따뜻한 봄, 하늘 가득히 핀 아지랑이 저편에 우뚝
솟은 바위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숲 사이마다 방긋이 웃는
두견화는 무척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길도 없는 등성이를 넘어갈 때마다 경치가 바뀌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거슬러 한고비를 돌면 판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년들은 그리운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 나왔을 때, 일행을 세워 보니
큰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고 없어서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잃은 한 명이 산속에서 혼자 헤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더라도 우리가 도로 산으로 가서 각자 찾을

수밖에 없겠어.”

친구들의 생각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두워 오는 산속이 무섭기도 하고 위험도 하겠지만, 친구를 남겨 놓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스무 명의 소년들이 흩어져 친구를 찾았습니다. 달이 밝아서 산기슭을 낮 같이 비추었지만, 그래도 깊은 숲속은 마귀의 굴처럼 무섭고 캄캄했습니다.

낮 같이 밝은 달밤, 두견화가 쓸쓸히 핀 삼각산 골짜기마다 어린 소년들이 친구를 부르는 구슬픈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가엾게도 그 애타는 소리는 길을 잃은 친구의 귀에 닿지 못하였습니다. 소년들은 저녁도 굶고 서툰 산속에서 밤이 새도록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달님이 귀가 있어 들었다면 눈을 가리고 울었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점심때도 지나고 저녁때가 되었는데, 어린 소년들은 친구도 못 찾고 나가는

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소년들은 가련하게도
기진맥진하여 더 걷지도 못하고 바위 옆에 늘어지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당한 일이라 21명이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나무 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여러 날, 여러 달이 지나도록 그 산에서 살아
나온 소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가을 뒤에 겨울이
왔습니다. 삼각산도 골짜기마다 하얀 눈에 덮여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희한하게도
전에 없던 분홍빛 어여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은 골짜기마다 가득 피었습니다. 온 산이 기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벌과 나비도 기뻐하였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펄펄 신나게
날아다녔습니다.

나비가 꽃가지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꽃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어여쁜 꽃이 탄식을 합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나비는 꽃을 달래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작년 봄에 친구들과 삼각산을 구경
왔었습니다. 잃어버린 친구를 찾다가 이 나무 밑에서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되었답니다. 그때
같이 왔던 친구들의 소식을 알지 못해 답답하여
탄식하였습니다.”

나비는 꽃의 이야기를 듣고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비는 그 옆의 골짜기에 가서도 똑같은 탄식을 하는 꽃들을 만났습니다.

‘옳지. 그 21명이 모두 서로 소식을 모르고 꽃이 되었구나.’

나비는 꽃나무마다 찾아가서 서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꽃님, 염려 마세요. 당신의 친구들도 당신처럼 모두 꽃이 되어 골짜기마다 피어 있습니다. 당신이 꽃이 되어 여기 있다고 말해 주니 기뻐하였습니다.”

나비가 전해 준 소식을 들은 꽃들은 안도하였습니다.

그 후로 꽃이 된 소년들은 나비와 벌의 힘을 빌려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꽃이 질 때가 되면 서로 얘기를 나누고는 일시에 와락 저 버렸습니다.

배똥똥이

추석(秋夕) 전날이었습니다. 늘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병욱이는 이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욱이를 달랬습니다.

“병욱아, 어서 학교 갔다 와. 그럼 엄마가 밤 송편이랑 꿀 송편이랑 해 뒀다가 학교 갔다 오면 줄게. 너 꿀 송편 잘 먹지?”

병욱이는 할 수 없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긴 갔으나 이날 온종일 병욱이의 눈에는 송편만 보였습니다. 공부에는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8+7’을 14라고 했다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팔월 보름을

추석이라고 하오’라고 해야 하는데, ‘칠월 보름’이라고 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 병욱이는 송편을 생각하며 부리나케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리 걷느라고 발부리가 돌에 치여도 별로 아픈 줄로 몰랐습니다. 아프기는커녕 발부리에 채여 굴러가는 돌이 꼭 송편처럼 보였습니다.

병욱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꿀 송편 했어요?”

“그럼. 밤 송편도 하고 다 했지.”

“그럼 어서 주세요!”

병욱이는 마루에 올라서면서부터 보냈습니다.

“올다. 요것만 먹고 이따 아버지랑 형이랑 오면 같이 먹자.”

어머니가 갖다 주신 접시엔 송편이 겨우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욱이는 먹지도 않고 뽀로통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병욱아, 그러지 말고 이것만 먹고 얼른 아저씨
댁에 가 봐. 뭐 맛난 거 하셨으면 주실지 아니?”

병욱이는 “아저씨 댁의 맛난 것”이란 엄마의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병욱이가 떡 세 개를 훌쩍 먹고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 아저씨 댁에 갈래요!”

“그래. 가는 길에 이것도 갖다 드려.”

“이게 뭐예요?”

“송편이야. ‘엄마가 조금 갖다 드리래요’ 하고선
아주머니 드리면 돼.”

병욱이는 떡 꾸러미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조금
가다가 병욱이는 떡 생각이 났습니다.

‘웁지. 이 속에 떡이 있지! 까짓것 몇 개 꺼내 먹고
갈까?’

아까 집에서 맛본 송편 생각에 침이 절로
넘어났습니다. 그러나 참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잔디밭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병욱이는
송편 생각이 또 났습니다.



‘몇 개 꺼내 먹어도 아주머니가 모르실 거야. 그래.
딱 두 개만 꺼내 먹고 갖다 드리자.’

생각 끝에 병욱이는 잔디밭에 털썩 앉아 떡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송편을 한 개 얼른 꺼냈습니다. 그리고 송편을 입에다
단번에 쏙 넣었습니다. 역시 송편은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개를 꺼내 먹었습니다.

병욱이는 처음에 먹기로 생각한 송편 두 개를 벌써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 떡이 더 먹고 싶어서 전달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병욱이는 한 개를 더 꺼내 먹었습니다. 그래도 더 먹고 싶었습니다.

“딱 하나만 더 먹자!”

병욱이는 송편을 또 꺼내 먹었습니다. 네 개가 다섯 개가 되고, 다섯 개가 여섯 개가 되었습니다.

병욱이가 떡 꾸러미에서 꺼내 먹은 송편은 모두 일곱 개였습니다. 떡 꾸러미는 그새 가벼워졌습니다.

병욱이는 원래 떡을 몹시 좋아합니다. 게다가 욕심꾸러기이기도 합니다.

병욱이는 떡 꾸러미가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다시 꾸렸습니다. 아저씨 댁에 도착한 병욱이는 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떡 조금 갖다 드리래요.”

아주머니는 ‘병욱이네가 떡을 조금밖에 못 해서 요 정도만 보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병욱아, 떡 가져오느라고 수고했다. 어서 들어와. 와서 빈대떡 좀 먹어.”

아주머니는 병욱이에게 녹두 빈대떡을 한 접시

가져다 었습니다. 병욱이는 배가 상당히 불렀지만,
빈대떡의 구수한 냄새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누르스름한 빈대떡을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네서 빈대떡을 한껏 먹고 집에 돌아온
병욱이는 식구들을 따라 송편을 더 먹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병욱이는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다 말고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저씨 댁에서
빈대떡을 먹었다고 하더니 그게 탈이 났나?”

어머니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추석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병욱이의
배를 보니 헛배가 불려서 그런지 몹시 똥똥해
보였습니다. 결국 병욱이는 구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병욱이의 배를 자꾸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북처럼 퐁퐁 소리가
났습니다.

“너무 과식해서 위장에 탈이 났습니다. 입원해야

하겠습니다.”

진찰을 끝낸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식이라니요?”

어머니는 전날 병욱이가 떡 심부름을 가다가
송편을 일곱 개나 꺼내 먹은 것을 모르셨습니다.

“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났네요.”

의사는 병욱이의 똥똥한 배를 다시 한번 꺾 눌러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지? 어저께
내가 떡 꺼내 먹는 것을 보셨나 봐.’

마침내 배똥똥이 병욱이는 똥똥한 배를 내밀고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사 한 대를
맞았습니다. 병욱이는 정신이 펄쩍 나서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구나!’ 하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참새와 구렁이

참새 나라는 날마다 노래와 춤으로 즐겁고
평화로웠습니다. 참새들은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심술궂은 구렁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찾아왔습니다. 구렁이는 펍 점잖은
말투로 참새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뱀 나라에서 여기 참새 나라로 여행을
왔습니다. 참새 나라는 정치도 좋고, 인심도 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동안 구경 잘하고 돌아가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렁이의 점잖은 말을 들은 마음씨 고운 참새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고마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 볼 것도 없는 나라에 이렇게 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경치야 별로 볼 것도 없지만 한동안 잘
놀다 가십시오.”

참새들은 구렁이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구렁이는 참새 나라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마음대로 구경하였습니다.

참새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구렁이를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가고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구렁이는 여전히 참새 나라에
머물렀습니다. 그제야 참새들은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렁이가 이만하면 웬만한 곳은 다 구경했을 텐데,
왜 돌아가지를 않을까요?”

더구나 이제는 조금만 대접이 부족해도 구렁이는
불쾌한 티를 물씬 풍겼습니다. 참새들은 그만 속이
타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젠 그만 가지! 염치도 없어! 남의 나라에 와서 벌써 며칠째야? 아주 능글능글하구만.”

“그러게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들이지를 말 걸...”

“자기도 염치가 있으면 며칠만 더 있다가 가겠지 뭐.”

참새들은 이렇게 뒤에서 수군수군 구렁이의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새들이 아무리 떠들고 수군거리어도 구렁이는 못 들은 척을 하며 빈둥거렸습니다. 그저 여전히 빈둥빈둥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가서 턱 드러눕고 대접이나 받으려 했습니다.

하루는 마침 매 한 마리가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획 하고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매가 향한 곳은 구렁이 손님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매는 무섭고, 징글징글하고, 커다란 구렁이를 보더니 “나 살려라” 하고 멀리멀리 도망쳤습니다.

꽂지가 뺏뺏하게 도망가는 매를 보고 구렁이는

한바탕 꺄꺄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쥐구멍을 찾아 숨어 있다 나오는 참새들을 보며 아주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것 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싫어하는 눈치가
있었지만, 사실 나는 당신들을 보호해 주려고
아직까지 있었던 거요.”

구렁이는 참새들은 보며 한껏 큰소리를 쳤습니다.

참새들은 그동안 사납고 날쌔 매가 늘 무서워서
떨떨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 손님 덕에 매가 꿈쩍도
못 하고 도망가는 것을 보니, 구렁이를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참새들은 전보다 더 구렁이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바쁜 일이 생기거나 급한 볼일이 있는 날에는 어린
참새들을 구렁이에게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구렁이는 참새 새끼들을 아주 귀여워하며 잘
봐주었습니다. 참새들을 기쁜 마음으로 구렁이를
더욱더 믿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은 평화로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늙은 과부 참새가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참새가 귀하게 기르는 외아들이 울면서 쫓아 나섰습니다.

“아들아, 울지 말고 저 구렁이 양반하고 잘 놀고 있으렴. 그러면 엄마가 시장에 가서 네 옷감도 사 오고, 맛난 반찬도 사 올게. 응? 우리 아기 착하지?”

과부 참새는 이렇게 아들을 달래서 구렁이에게 맡겼습니다.

늙은 과부 참새는 색동저고리 옷감이며, 꽃신이며, 밤, 대추, 사과를 잔뜩 사서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금동아! 금동아!” 하고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과 달리 아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부 참새는 아들이 잠든 줄 알고 방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도 사랑하는 아들 금동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구렁이 혼자서 배를

블룩블룩하면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미 참새는 그만 이고 온 보따리를 내던지며
구렁이를 깨웠습니다.

“구렁이님, 구렁이님, 우리 금동이는 어디
갔습니까?”

능청맞은 구렁이는 눈을 쓱쓱 비비며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벌써 다녀오셨수? 금동이가 어디로 가다니? 방금
전까지도 방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잘 놀았는데. 애가
어디로 갔을까?”

할 수 없이 어미 참새는 아들을 찾아 온 동네며,
산이며, 들로 헤맸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외아들을 찾지 못했고, 정신 줄을 놓아 버렸습니다.

이 일이 생긴 이후에는 가끔씩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어린 참새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처녀 참새와
논에서 농사짓던 총각 참새까지 사라지는 일이

꼬리를 물고 자주 일어났습니다.

구렁이는 자기는 도무지 모르는 것처럼 점잖게 다니며 대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때는 오고야 말았습니다. 참새들이 비로소 자신들이 믿었던 구렁이의 짓이라는 것을 눈치 채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참새 나라에 날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그 구렁이 녀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새들은 구렁이와 결판을 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내일은 아이들만 동네에서 놀게 하고 모두 밭에 나가는 척을 합시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구렁이 놈이 몹쓸 짓을 하려고 할 때 뛰쳐나갑시다. 구렁이 놈을 아주 꼭 잡아서 찢값을 치르게 하자고요.”

이튿날 어른 참새들은 어린 참새들만 두고 호미와 쟁이, 낫을 가지고 일을 나가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뒤에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낮쯤 되니 구렁이가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참새 새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참새 새끼들은 재재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짹 벌리고는 그중에서 제일 어린 참새 하나를 집어 물었습니다.

“ 짹! 짹짹!”

아기 참새가 살려 달라고 연거푸 소리를 질렀습니다. 숨어 있던 참새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와르르 뛰쳐나와 구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는 참새들에게

물어 뜯겨 죽었습니다. 그 후부터 참새들은 구렁이나
뱀만 보면 물어뜯으려고 모여서 떠든답니다.

온종일 별판에 나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오늘 저녁은 어스름할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니 쥐 죽은 듯이 고요할 뿐,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불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면 “이제 오니?”, “덥지?” 하시면서 맞아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 보니 어린 동생만이 췌근췌근 자고 있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또 그림책이나 볼 수밖에...’

책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벽장문을 열고 그림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은 없었습니다.
동생이 찢거나 침이라도 흘릴까 봐 항상 동생의 키가
닿지 않는 벽장에 넣어 두곤 했습니다. 성냥불을 비취
가며 살살이 뒤적거리다가 깜박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제 저녁, 잠들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가 싫어 반짚고리에
책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 일이 생각나 부리나케
바느질 그릇을 뒤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책은
없었습니다.

때마침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밖에서 났습니다.
문을 뚝 열고 보니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반짚고리에 넣어 둔 그림책 못 보셨어요?”

“아침에 옷 광주리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막 찾아봐도 없어요!”

“글쎄, 난 모르겠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리시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저를
달그락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석구석 잘 찾아보렴.”

나는 어머니가 미워졌습니다. 말이야 누군들 못
하나요. 그 그림책은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재미나게 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책이 없어지다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높은 데 감춰 뒀어야 했는데, 옷 광주리에 넣어
뒀더니 동생이 내다 버린 게 확실했습니다. 싹싹 자고
있는 동생을 꼬집어 주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밥상을 들고 오셔서
저녁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배고픔이 없어져서
숟가락을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 들어오신다. 쩡그리지 말고.”

곧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왜 밥을 안 먹느냐고 꾸지람을 하실까 봐



나는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컴컴한 밤. 바람이 으스스 울타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책이 그전보다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병정이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물에 빠진 소녀를 건져 내고,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섰습니다.

곁에서 바늘귀를 꿰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 줄 테니 얼른 자거라.”

이불을 막 뒤집어써 보았지만 눈만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그림책을 한참 생각하다 보니
김 선생님에 대한 생각까지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름을 알아 둘 걸 그랬네.’

실상은 이름을 알아 봤자 어디로 가셨는지 주소도
모르니 편지를 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없어진 그림책을 주신, 사방모자를 쓰고
학교에 다니시던 아주 상냥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떡전거리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나온 지 3년쯤 되었습니다.

“애가 뭘 생각을 그리하니? 얼른 자야지.”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발끈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게요!”

나는 질겁해서 저절로 통명스러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림책인지 뭔지는 밝은 낮에 찾아 줄 테니 어서

자려무나. 어서 자고 내일 또 일해야 먹고살지
않겠니.”

나는 어머니께서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김
선생님에 대해 여쭙봤습니다.

“저어, 김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갑자기 김 선생은 웬 말이야?”

어머니는 황당해하셨습니다.

“으응, 그 학생 선생 말이지?”

아버지는 잠결에 말씀하시곤 돌아누워서
드르렁드르렁 코만 고셨습니다.

나도 핫김에 이불을 다시 뒤집어썼습니다.

김 선생님은 우리 동네에서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우리 옆집에 방을 한 칸 얻어
지내고 계셨습니다. 나도 사대문 안에 살 때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대문
밖으로 이사 온 후부터는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같이 놀 친구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일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해 주신 분이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나는 김 선생님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김 선생님과 같이
짬뽕도 하고, 사방치기도 톸툴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이 소풍을 가서 은종이, 금종이로 썬 달콤한 사탕도
얻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학교를 마치고 어떤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길을 떠나시던 전날 밤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그 그림책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김 선생님…”

“궁상스럽게 무슨 애가 잠꼬대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림책을
잃어버린 것이 몹시 서운해서 내내 생각을 하다 보니
잠꼬대를 했던 것입니다.

“쫓쫓. 빨리 일어나거라. 해 뜬 지가 언제인데.
오늘은 풀을 좀 깎아야 할 텐데…”

아버지께서 거세게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보니 장독대 항아리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뜰 안에서 서성대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먹기 전에 낮이나 갈아 둘까.’

구렁에서 낮을 꺼내 솥돌에다 삭삭 갈았습니다.
낮을 갈다 보니 다시 그림책 생각이 뭉게뭉게
떠올랐습니다.

병정이 말을 타고, 나팔을 불고, 물에 빠진 소녀를
건져 주고,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그림들이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얘, 빨리 올라와 밥 먹어라!”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마루 위에는 김이 나는
국그릇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물장수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았다. 아무리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쳐다보아도 하늘은 파랗기만
했다. 벌써 두 달째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니 풀이 말랐다. 나무가 시들었다.
물도 말랐다. 사람들의 가슴도 타고, 곡식도 탔다.
동네마다 우물물이 줄아서 우물가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졌다. 공동 수도 옆에는 물통이 줄줄이
서서 체조를 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쪽 서서 물
받을 차례를 기다렸다.

비가 어서 와야 할 텐데 비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비가 어서 와야 곡식도 자라고, 열매가

열리고 추수를 할 텐데….

하늘 위에 있는 비가 다 말라 버렸나? 하늘에 구름이 껴야 비가 온다는데, 구름은 다 어디로 달아나 버렸나?

그 많던 흰 구름, 검은 구름, 붉은 구름, 솜구름, 떼구름이 어디로 몰려가고 없을까? 암만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르겠다. 내가 비를 오게 하는 재주가 있다면 벌써 비를 오게 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비를 오게 하는 재주가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서 비를 내리셔야 살 텐데…” 하고 걱정들만 하지.

사람이 못 하는 게 없다고 평평거리더니만, 왜 비는 오게 못 하나. 옳지!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나는 꼭 비를 오게 하는 재주를 알아내고야 말겠다. 두고 보라. 내가 어른이 되면 모두 비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동네에 ‘아기 물장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아침저녁이면 조그만 아기 물장수가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이 없는 집을 찾아다닌다고 했다. 돈도 받지 않는 마음씨 좋은 아기 물장수라고 했다.

나도 아기 물장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 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앞 골목에 나가 있었다. 정말 아기 물장수가 물통을 들고 기우똥기우똥 순희네 집으로 가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인선’이었다.

우리 4학년에서 모범생으로 칭찬받는 인선이야 바로 아기 물장수였다.

‘그렇지. 인선이니까 돈도 안 받고 물장수 노릇을 하지. 누가 덥고 힘든데 거저 물을 길어다 주겠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인선의 뒤를 슬슬 따라갔다. 인선이 순희네로 들어가자 쓱르르 물 붓는 소리가 났다.

“아이고, 또 물을 길어 왔니? 이제는 정말 그만 두어라. 우리 순희가 길어다 먹지...”

순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희 엄마는 어디가
아픈지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다.

“괜찮아요.”

인선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인선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나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발길을 돌렸다. 몇 발자국을
가기 전에 뒤에서 신발 소리가 터벅터벅 났다. 대문
기둥에 물통 부딪히는 소리가 징그렁 하며 들렸다.

“윤식아!”

누군가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돌아보니 인선이가
빙그레 웃으며, 빈 물통을 흔들며 가까이 오고
있었다.

“순희네 어머니가 아프시대.”

“응…. 그래서 네가 물을 길어다 준 거니?”

내가 물어보니 인선이가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말했다.

“순희네 우물이 요새 아주 말라 버렸어.”

“비가 안 와서 그래.”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아도 인선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인선이는 자기 집 앞에 다다르자 한 번 씨익 웃고 나를 보더니 말했다.

“너 여기 있어. 내가 집에 들어가서 물 한 통만 더 길어 가지고 나올게.”

인선이네는 저희 집 혼자서만 쓰는 수도가 뜰 안 가운데에 있다. 인선이가 안으로 들어가자 물통에 물 따르는 소리가 쇠췌 났다.

“글쎄, 이제는 좀 그만되라. 누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그리 열심히 하니?”

인선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잇따라서 인선이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렸다.

“그래, 이제 그만 아침밥이나 먹어라.”

“요거 한 통만 더 갖다주고요….”

조금 후에 인선이가 물통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누구네 갖다주려고?”

“생선 장수 영감님네.”

“그럼 나도 좀 들고 갈까?”

“아니야. 나 혼자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인선이가 혼자 물통을 드는 것이
미안했다. 기를 쓰고 인선이의 물통을 움켜쥐려고
했다. 하지만 인선이도 기를 쓰고 저 혼자서 물통을
들고 가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둘이서 함께 물통을
들고 생선 장수 영감님네로 갔다.

생선 장수 영감님은 가족도 없이 생선을 팔며 혼자

사시는 영감님이다. 영감님은 좁다란 부엌 앞에서
밥을 짓고 계셨다. 영감님은 우리가 물통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는 허둥지둥 달려 나오셨다.

저번에 영감님이 물 받을 차례를 기다리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맨 끝찌에 계신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돈 내고 물을 얻는 것도 힘든 판에 우리가 물 한 통을
가득 들고 오니 정말 반갑고 기쁜 모양이셨다.

영감님은 벌벌 떨면서 물통을 받으셨다.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쏟고는 주름살 잡힌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띠며 말씀하셨다.

“고맙다.”

인선이가 얼른 물통을 받아 들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내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췌그랑,
파당탕 하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영감님과
나는 급히 달려 나갔다.

인선이가 들고나갔던 물통은 모서리가 찌그러져서
저만치 나가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인선이는 대문 밖
돌계단 밑에 넘어져서 두 손으로 무릎을 쥐고

찢찢매고 있었다.

영감님네 대문 밖에는 크고 작은 돌맹이들로
울퉁불퉁, 삐죽삐죽 만든 돌계단이 있었다. 인선이가
물통을 들고 내뛰다가 아마 그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다.

영감님과 나는 달려 나가 인선이를 안아 일으키고
먼지를 털어 주었다. 인선이의 무릎에서는 피가
주르르 흘렀다. 나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영감님이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형짚 조각을
들고 나와 인선이의 무릎을 정성스레 싸매 주셨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영감님에게 인선이는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보니까 인선이의 눈에는
눈물 흔적이 약간 있었다. 꽤 아픈 모양이었다.

‘인선이는 저렇게 피가 나오는데도 참는구나.’

나는 인선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인선이는 우리 4학년에서, 아니 우리
학교에서 모범이 될 만하다.’

인선이는 다시 물통을 들고 절뚝절뚝 걸었다.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잠자코 인선이 옆에서 따라 걸었다.

그리고 오늘은 학교 소집일이었다. 학교에 갔더니 인선은 아직도 무릎에 형짚을 감은 채 절뚝절뚝하면서 학교에 왔다. 그걸 보더니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물었다.

“인선아, 무릎이 왜 그래? 왜 그래?”

선생님도 물으셨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본 대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인선의 등을 토닥이면서 인선을 칭찬하셨다.

“아기 물장수가 기특하고 장하다!”

아이들도 한 번씩 “아기 물장수, 아기 물장수” 하며 인선을 불렀다. 아기 물장수 인선이라도 그 소리를 듣고는 빙그레 웃었다.

알사탕과 설탕

양치 소금

“물 튕다!”

아빠가 호령을 하시는 바람에 옥이는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옥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나와야만 일어나는 늦잠꾸러기입니다. 때문에 어른들이 세수하시는 것을 여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이는 아빠가 세수하시는 것이 재밌게 보여 다가서 있었습니다.

옥이가 세수할 때는 엄마가 시켜 주시거나, 마음 내키면 자기가 물을 찍어 바르거나 하였습니다. 아니면 도무지 씻지 않겠다며 떼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옥이인지라 아빠가 “취, 푸르투!”
하며 세수하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오빠는 세수 안 해?”

옥이는 엄마보다 오빠가 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세수할 때는 ‘내 멋대로 봐야지’ 하고 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수 해? 안 해?”

“해.”

오빠는 넋지시 대답하고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빠는 무언가를 먹으면서
나왔습니다. 설탕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를 수북하게
담은 접시를 손에 들고, 가루를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좀…”

“무얼?”

“그거!”

옥이는 손가락으로 접시를 콕 가리켰습니다.

“이거 먹고 싶단 말이지?”

옥이는 오빠의 물음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아! 이걸 먹으면 짬 거야.”

“설탕이 짬 거라고?”

“응. 사탕가루가 아니야.”

오빠는 혼자서만 짹어 먹었습니다.

“혼자만 짹어 먹지 말고 나도 좀 줘!”

“설탕이 아니래도?”

“그럼, 뭐야?”

“소금이야, 소금.”

“오빠는 자꾸 짹어 먹으면 뭘 그래?”

옥이 오빠는 한편으로 우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옥이가 알밋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소금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인 줄 알고 자꾸
졸라대니까요.

오빠는 옥이에게 접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봐봐, 설탕인가.”

옥이는 먹고 싶어서 목젓이 넘어가던 판인지라
접시에 든 것을 단숨에 목에 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짜다!”

나프탈렌

“엄마! 고리에 넣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장에 다녀오신 엄마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봉지를
고리에다 넣고 계셨습니다. 옥이의 눈에는 그것이 꼭
알사탕으로만 보였습니다.

“엄마! 하나만 먹을게요.”

“이게 알사탕인 줄 아니? 못 먹는 거야.”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엄마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는지 종종걸음으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옥이는 예전에 엄마가 누런
봉지에서 알사탕 두 알을 꺼내 주시고, 나머지

알사탕은 높은 고리 속에 넣으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엄마는 옥이가 떼를
쓰거나 심부름을 갔다 오면 한 알씩 주셨습니다.

옥이는 있는 힘을 다 써서 오빠 책상을 고리 앞에
갓다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베개를 쌓고 올라가니
고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안 열리려고 버티는 고리 뚜껑을 콧잔등에 땀을
흘려 가며 억지로 열었습니다. 봉지를 뒤흔드는 옥이의
팔목이 고리쪽에 닿아 빨갛게 일어났습니다.

옥이는 기어코 알사탕 봉지를 꺼내 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던 봉지와 꼭 같은 노란
봉지였습니다. 옥이는 좋아서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흘린
눈물값으로 겨우 한 알씩 얻어먹던 사탕이었습니다.
그런데 툭 터지리만큼 알사탕이 듬뿍 든 봉지를 손에
쥐게 되었으니 이런 호사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봉지를 펴고 쓰윽 들여다보니 눈송이같이 새하얀
것이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사탕들은 물기가 있고 눅직한 것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둥글고 매끈하기만 했습니다. 옥이는
단번에 세 톨을 꺼내서 입안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에튀! 에튀! 에튀튀!”

나들이

옥이 할머니께서 사돈댁에 가시려고 옷을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돈댁이란 바로 옥이의
외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옥이는 어느새
알아차리고 자기도 따라간다면 떼를 썼습니다,

“옥이야. 달달한 알사탕 사다 줄 테니 집에서 놀고
있어라.”

“아휴, 구역질 나는 걸 누가 먹어요.”

“알사탕이 구역질 난다고? 허참, 이 할머니
따라가려고 능청맞은 소리를 다 하는구나.”

“암만 그러셔도 따라갈 거예요!”

“오빠더러 벽장에 든 설탕 봉지를 꺼내 달래서
먹어라. 응? 우리 옥이 착하지? 떡 짝어 먹다 남은 거

있잖니.”

“짠 걸 누가 먹어요? 안 먹어요!”

온 집안 식구가 옥이를 혼내 보고, 달래 보고 하였지만 옥이한테는 못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는 수없이 옥이를 데리고 사돈댁으로 향하셨습니다.

옥이 외할머니께서는 옥이가 온 것이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옥이를 주려고 인절미도 사 오시고, 하얀 사탕가루도 사 오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젓가락 끝에다 인절미를 꼭 찍은 다음 설탕을 찍어서 옥이에게 주셨습니다.

옥이는 먹고 싶었지만 떡에 찍혀 있는 가루가 짭 것이라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 먹는다고 고개를 좌우로 세게 흔들었습니다.

“옥이야! 외가에 와서는 사양하는 법이 아니란다. 어서 먹어. 응?”

“....”

외할머니께서는 떡 썬 젓가락을 옥이에게 억지로 쥐여 주셨습니다. 옥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짠 게 찍히지 않은 곳을 골라 절반만 베어 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온 집안사람들이 설탕을 못 먹는 애는 처음 본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외사촌 동생이 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 퍼트렸습니다. 옥이는 외가에 더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할머니를 졸라대서는 하룻밤도 지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펍 섭섭하다 하시면서 옥이에게

알사탕 한 봉지를 사 주셨습니다. 한 알씩 먹으면서 집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좋아하는 떡이 아니라 구역질 나는 알사탕을 주시니까, 옥이는 안 받는다고 할머니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옥이 때문에 외할머니는 섭섭해하시고, 할머니는 무안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셔서 옥이 엄마와 아빠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을 건너, 온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이상한 애도 다 보네. 알사탕이 구역질이 난다니?”

“말도 마요. 설탕이 짜다네요.”

“허참, 생기기는 매끈하게 생겼는데.”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른 걸까요? 별 희귀한 꿀도 다 보네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통에 옥이는 설탕과 알사탕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발자전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옥남이는 세발자전거를 타고 벌써 다섯 바퀴나
골목을 빙글 돌았습니다. 누구라도 보란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호기롭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런 옥남이를 보고는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옥남이는 더욱 신이 나서 아까보다도 더 힘차게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옥남이 아버지가 어제 새로 사 주신 세발자전거가 햇빛에 번쩍거렸습니다. 옥남이는 이 자전거를 얻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몇 번이나 울며불며 떼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 자기가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자전거만 뽐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옥남이의 세발자전거를 한 번씩 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모두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차츰차츰 옥남이에게 다가섰습니다. 더 다가가지 못하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옥남아, 나도 한 번 타 보자.”

그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나도 한 번 타 보자!”

“옥남아, 나도 한 번!”

하지만 옥남이는 못 들은 척을 하며 혼자서

자전거만 몰았습니다.

원체 욕심꾸러기인 옥남이는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뺏내기만 바쁘고, 잠깐이라도 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행여나 옥남이가 자전거를 한 번
타 보라고 하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옥남이는 여전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저
혼자서만 타고 놀았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몇씩어서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명수와 다른 몇몇의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마침 옥남이가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저쪽으로
급히 달려 나갔습니다. 보니까 옥남이는 자기 집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옥남이가 자전거를 버려두고 달아나니, 명수와
다른 아이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모두 자전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타 보고 싶었던 자전거를 이
틈에 한 번씩 타 볼 생각이었습니다.

자전거 하나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들러붙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잡이를 붙잡고, 어떤 아이는 안장을 붙잡고, 어떤 아이는 바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타 보려고 서로 밀치며 야단들이었습니다.

“야, 비켜! 내가 먼저 잡았어!”

“너만 잡았어? 나도 잡았어!”

세발자전거를 한 번도 마음 놓고 타 보지 못한 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옥남이가 돌아오기 전에 자전거를 얼른 타 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옆의 아이가 미워서 밀치락달치락하며 자전거를 빼앗으려고 악을 썼습니다.

그 통에 애꿎은 세발자전거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서 절그렁절그렁 소리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하나인데 타 보겠다고 덤벼드는 아이들은 여럿이었습니다.

세발자전거는 그런 아이들이 딱했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여러 쪽으로 나눠서 아이들을 다 태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 아이들이 잡아끄는 대로 그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렸습니다.

그중에도 제일 힘이 센 명수가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세발자전거는 명수 쪽으로 더 많이
끌려갔습니다. 명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자전거를
뺏으려고 더욱 힘을 냈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벌겋습니다.

명수가 거의 자전거를 혼자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전거를 잡아끌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명수가 자전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옥남이가 화장실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남의 자전거를 가지고 뺏들 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잡고 있던 자전거를 놓고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차마 자전거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명수가 자전거를 한 번 타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틀려 버렸으니 차마 자전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에게 다가온 옥남이는 한마디 툭 던지며
명수를 밀쳤습니다.

“야, 남의 자전거는 왜 붙잡아!”

명수는 그만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툭툭 털며 일어났습니다.

“인마, 좀 만져 보면 어때서!”

명수는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옥남이는 명수의 말은 들은 척만 척하고는 자기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 혼자 떡하니 올라탔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슬슬 돌아가고, 명수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명수는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옥남이 녀석, 한 대라도 치고 올걸.’

싸움이라도 한바탕 했어야 시원했을 텐데 그냥

돌아왔으니 분하기만 했습니다.

분한 생각 끝에 엄마에게 자기도 세발자전거를 하나만 사 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장수를 다니는 어머니께서 쉽게 자전거를 사 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는 기름을 팔러 나가셔서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으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저 혼자 골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웁지! 형에게 사 달라고 해야지.”

명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형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기름을 팔러 다니셨고, 형은 매일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매일 혼자서 집을 지키고 지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집, 다 쓰러져 가는 집을 혼자 지키고 있노라면 명수는 늘 갑갑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 아이들과 놀다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옥남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저 부러워서 자전거를 한 번 타 보고 싶었던 것인데, 밀쳐져서 넘어지기만

했습니다.

명수는 형이 공장에서 돌아오면 자전거를 사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형도 자전거를 사 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형에게 자동차 장난감을 사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돈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명수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식칼을 하나 찾아 문쪽에 있는 석유 궤짝을 뜯었습니다. 그리고선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톱, 망치, 송곳, 철사를 모두 찾아다 늘어놓고선 똑딱거리면서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는 것도 모른 채 만드느라 혼자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명수가 궤짝을 뜯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발자전거였습니다. 그까짓 옥남이 자전거보다 더 크고, 더 잘 굴러가고, 더 튼튼한 자전거를 만들 셈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다 만들고는 골목으로 나가 옥남이와
자전거 경주를 해 보겠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명수는 아직 혼자서는 생각처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석유 께짝이 그렇게 쉽게 자전거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명수는 자전거 만드는 데 온 정신을 쏟아서
께짝 널빤지를 깎았습니다. 둥그란 바퀴를 만들려고
또 깎았습니다.

그런데 명수가 갑자기 손가락을 쥐고서는
떨떨했습니다. 손가락에서 새빨간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께짝 널빤지를 너무 열심히 깎다가
그만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그만 울상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피가 나는 명수의 손을 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벌써 해는 저서 가뜩이나 우중충한
집안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지면 기름 팔러 나가셨던 어머니도
돌아오시고, 공장에 갔던 형도 돌아오건만 오늘따라

둘 다 늦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공장에
갔던 형이 빈 도시락을 털그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형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떨며, 피가 나는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형, 이거 봐.”

형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명수의 손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널브러져 있는
널빤지 조각이며 칼, 망치, 톱, 이런 것들을 휘휘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명수야, 너 뭐 만들려고 했구나.”

형은 얼른 형곶 조각을 찾아와 피가 나는 명수의
손가락을 감싸 주었습니다.

손가락을 동여맨 명수가 말했습니다.

“형, 나 세발자전거 만들 거야.”

이 말을 들은 형은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도 명수가 자동차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
사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소리만
질러 명수가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명수가 얼마나 자전거가 갖고 싶었으면 자전거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손가락을 베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수가 옥남이에게 밀쳐진 것이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는 형은 명수가 다친 것이 다 자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형은 물끄러미 명수를 바라보고는 말했습니다.

“그래, 형하고 같이 만들자.”

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힘이

느껴졌습니다. 형은 널빤지 조각과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던 공구들을 주섬주섬 주워 모았습니다.
그때 기름 팔러 나갔던 어머니도 기름 함지를 이고
들어오셨습니다.

며칠 후, 동네 아이들은 명수가 널빤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까짓 옥남이의 자전거도 자신의 널빤지
자전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수의 자전거는 바퀴가
네 개나 달린 네발자전거였습니다.

명수는 자신의 네발자전거를 신나게 몰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명수는 새로 생긴 네발자전거를 자랑 삼아
이 아이, 저 아이, 누구나 마음대로 타게 해
주었습니다.

엮은이

김수지

한국북네트웍스교육원

김인숙

(사)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

